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3호 [루게 제24536호] 주제 103 (2014)년 5월 3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은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다가야영소의 공원의자에 앉으시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친어버이의 정을 부여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가슴뜨겁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혁명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사랑의 역사를 길이 전하며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궁전으로 그 이름을 더욱 떨칠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당이 후대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인 야영소는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고 주제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멋쟁이건축물,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현대적인 야영각들이 바다가풍치와 조화되어 절경을 펼친 야영소는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을 방불케 하고있다.

야영소에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국제친선소년회관, 야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

장, 수족관, 조류사, 동물박제품진렬실 등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 제막과 야영소준공식이 5월 2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구호들과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글발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1 면에서 계속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이라!》,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강성조선의 태일을 앞당기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 양 옆에는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에게 위병대가 정렬해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들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준공식장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신 새 세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열레이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으시며 사회주의혁명강국의 휘황찬란한 태일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더 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황명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한광상동지, 리일환동지, 최취동지, 마린춘동지, 김여정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군부대, 만수대학장사,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을 비롯하여 동상을 모시는 사업과 건설에 공헌한 단위 일꾼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군인건설자들, 야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돌격대원들, 청년동맹일꾼들, 강원도내 일꾼들과 학생소년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준공식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제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을 당 책임일꾼들과 군대, 야영소의 일꾼들이 하였다.

제막포가 벗겨지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었다.

하늘땅을 뒤흔들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준공식장상공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와 전체 조선소년단원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소년단 강원도, 시, 군련합단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도내 당, 정권기관, 청년동맹, 대학,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쓰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통성변명과 인민의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되새기며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가 제막 및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에 넘쳐 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과 야영소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아이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보며 우리모두는 야영소에

어려있는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켜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 48(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짓도록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야영소를 찾으시어 야영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로 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다심한 학부형,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야영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야영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적들의 침략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때인 주체 82(1993)년 3월 야영소를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료해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진히 보살펴 주신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해님이시다.

어려있는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켜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 48(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짓도록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야영소를 찾으시어 야영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로 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다심한 학부형,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야영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야영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적들의 침략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때인 주체 82(1993)년 3월 야영소를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료해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진히 보살펴 주신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해님이시다.

어려있는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켜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 48(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짓도록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야영소를 찾으시어 야영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로 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다심한 학부형,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야영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야영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적들의 침략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때인 주체 82(1993)년 3월 야영소를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료해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진히 보살펴 주신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해님이시다.

어려있는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켜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 48(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짓도록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야영소를 찾으시어 야영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로 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다심한 학부형,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야영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야영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적들의 침략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때인 주체 82(1993)년 3월 야영소를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료해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진히 보살펴 주신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해님이시다.

어려있는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켜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 48(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짓도록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야영소를 찾으시어 야영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로 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다심한 학부형,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야영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야영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적들의 침략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때인 주체 82(1993)년 3월 야영소를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료해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진히 보살펴 주신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해님이시다.

어려있는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켜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 48(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짓도록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야영소를 찾으시어 야영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로 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다심한 학부형,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야영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야영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적들의 침략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때인 주체 82(1993)년 3월 야영소를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료해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진히 보살펴 주신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영원한 해님이시다.

야영소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오늘과 같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개건된 것은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에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한껏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과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지난해 5월 선군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야영소를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러있는 야영소를 최상급으로 꾸리기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새로 정중히 모시도록 친히 그 형성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다.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과 유능한 설계일꾼들을 파견해 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 주시였으며 최신식설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들, 여러가지 문화

오락기재들도 보내 주시었다.

준공을 앞둔 야영소를 또다시 찾으시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마련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면서 그 관리운영을 잘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야영소개건공사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혁명적인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군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여러 단위의 일꾼들, 돌격대원들, 도내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는 사업과 야영소개건공사에 한결같이 떨쳐나 백옥같은 총정파 애국의 마음을 바치었다.

정녕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조국의 미래로 내세워주시며 천만가지의 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군민의 뜨거운 애국충정이 낳은 결정체이다.

3 면으로 계속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2 면 에 서 계 속

연설자는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흥모의 마음을 담아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 일 성 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며 선군조선의 희망찬 미래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최대의 충정과 뜨거운 지성을 바쳐야 한다.

은 나라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구상과 평도를 한마음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가 활짝 꽃피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청소년과의교양부문 일군들과 야영소 일군들, 종업원들은 야영소관리운영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해나감으로써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따라 이 땅우에 통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며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빛나게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크나큰 격정에 힘써서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지어주시었다.

선군조선의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는 회세의 천출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며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송도원국제소년  
단야영소를 사회  
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선  
군시대의 기념  
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건하  
는데서 로력적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



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선도자적역할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  
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  
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  
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조국  
의 푸른 하늘  
가로 메아리쳐  
갔다.  
조선인민군

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  
시었다.  
황병서동지, 로경준동지,  
김진근동지가 여기에 참가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으로 하여 군인건설  
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설  
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군인건설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가 당의 후대관이 비낀 세  
개건전투에 진입한 첫날부  
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  
공전으로 개건될수 있을것  
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맞  
은 군인건설자들의 충정의  
받아 뚝고나감으로써 당에  
서 준 명령을 빛나게 관철

하고 근위부대, 영웅부대의  
전투적기백과 투쟁분패를  
남김없이 과시한 군인건설  
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가 당의 후대관이 비낀 세  
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공전으로 개건될수 있을것  
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맞  
은 군인건설자들의 충정의  
받아 뚝고나감으로써 당에  
서 준 명령을 빛나게 관철

늘래우는 조선속도를 창조  
하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조선  
인민군 제267군부대에  
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강조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몫  
다 바쳐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  
었다.  
앞으로도 당이 맡겨준 강성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  
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고도 모든 영광을 자기  
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강조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몫  
다 바쳐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  
었다.  
본사정치정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와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진행, 축포 발사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최고 정화로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가 2일 현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야영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또다시 한자리에 모시고 체육경기와 명성높은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행복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동해명승 송도원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훌륭히 건설된 야외운동장에서는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가 진행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인 세계일류급의 야외문화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시고 대해갈 은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황병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한광상동지, 리일환동지, 최취동지, 마원춘동지, 김여정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돌격대원들, 청년동맹일군들, 강원도내 학생소년들과 일군들이 경기를 보았다.

어머니당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인 야영소의 산뜻한 야외운동장에서 첫 경기를 하게 된 평안남도림과 함경남도림의 소년축구선수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환희와 랑만이 한껏 어려있었다.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치는 미래의 축구 선수로 자라날 열의안고 꾸준히 편마해온 자기들의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소년축구선수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며 관람자들은 응원열기를 높였다.

경기시작부터 맹활약을 하던 함경남도림의 10번 박충진선수가 후반전



10분경 보기 좋은 득점으로 첫 골문을 열었다.

많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팀의 골문을 부단히 위협하던 평안남도림의 5번 김권성선수가 후반전 23분경에 마침내 동점골을 넣어 경기는 더욱 치열해졌다.

나이는 어려도 능숙한 공물기와 집단주의 정신, 훌륭한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하는 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후반전마감까지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부차기가 진행되었다.

결국 경기에서는 함경남도림이 평안남도림을 5:4로 이겼다.

이어 시상이 있었다.

축구경기를 통하여 선수들은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펴고 앞날의 체육강국을 떠메고 나갈 축구선수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발랄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의 하늘가에 메아리쳐 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끝없는 감동, 심판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그들을 고무해주시고 함께 기념사진을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찍으시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경기보장성원들까지 몸가까지

부르시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한없이 숭고한 미래사랑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하며 선군조선을 빛내어갈 체육인후비로 역세계 자라날 결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이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국제친선소년회관에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진행되었다.

녀성중창 《소년단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전국의 경치좋은 곳마다에 소년궁전과 야영소를 세워주시고 한평생 후대사랑의 역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식 경음악의 황홀하고 풍만한 울림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와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진행, 축포 발사



5 면 에서 계속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주인공들로 역 세계 키워주시고 조국의 통성변명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의 세계를 되새겨주는 명곡들인 녀성3중창 《장군님과 아이들》, 녀성2중창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녀성독창 《우리 아버지》는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로 높이 모시어 이 땅우에는 백두산철세위인들의 위대한 력사가 끝없이 흐르고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무대배경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지자 관람자들의 가슴

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역세계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젖어들었다. 우리 학생소년들이 사랑하는 아동영화들의 주제로 동심에 맞게 형상한 경음

악과 노래편곡 《아동영화노래묶음》과 《만화영화세계》는 관람자들을 동화의 세계로 이끌어가면서 축하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7 면 으 로 계속

